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9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여호수아 · 고린도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항예수교
창조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Contents

9 매일성경묵상 여호수아 12장 ~ 여호수아 14장

14 1과 기억하라

22 매일성경묵상 여호수아 15장 ~ 여호수아 20장

30 2과 니느웨의 회개

38 매일성경묵상 여호수아 21장 ~ 고린도후서 2장

46 3과 마지막 때에는?

54 매일성경묵상 고린도후서 3장 ~ 고린도후서 8장

62 4과 잃어버린 기쁨

70 매일성경묵상 고린도후서 9장 ~ 고린도후서 13장

76 청지기 훈련 인터뷰

「중현의 만나」는

가정에배 · 구역에배 · 대약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9

September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5 여호수아 15장	6 여호수아 16장	7 여호수아 17장
11	12 여호수아 21장	13 여호수아 22장	14 여호수아 23장
18	19 고린도후서 3장	20 고린도후서 4장	21 고린도후서 5장
25	26 고린도후서 9장	27 고린도후서 10장	28 고린도후서 11장

October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여호수아 12장

2 여호수아 13장

3 여호수아 14장

8 여호수아 18장

9 여호수아 19장

10 여호수아 20장

15 여호수아 24장

16 고린도후서 1장

17 고린도후서 2장

22 고린도후서 6장

23 고린도후서 7장

24 고린도후서 8장

29 고린도후서 12장

30 고린도후서 13장

교회 주요일정

9월 4일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기념주일(가족연합예배)

나의 주요일정

-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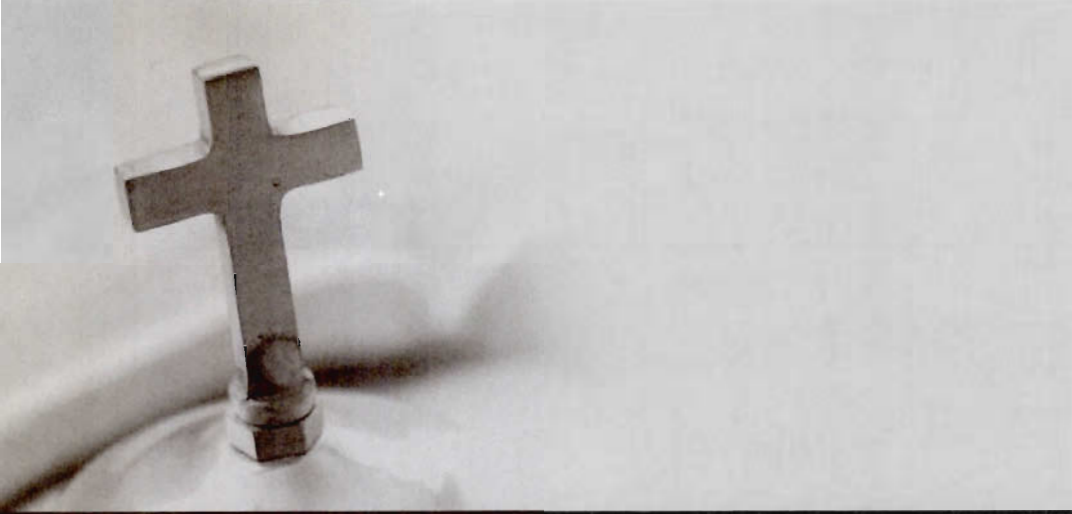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스웨에는 단 한 교회도, 단 한 사람의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전한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스웨 백성 모두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교회들과 설교자들이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니스웨에는 교회가 없었고 단지 매우 짧은 메시지를 전했던
한 명의 설교자가 있을 뿐이었지만 모든 민족이 회개했습니다.

니스웨처럼 우리도 완전한 멸망의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11년 9월을 맞이하여 위임출판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하나님의 뜻

목요일

1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은 요단강 도하 이전까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위엄을 떨쳤습니다(1~6절). 이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에서 가나안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7절부터 24절에는 정복된 순서대로 남부지역 16명과 북부지역 15명의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왕은 자그마치 서른한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정복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정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계획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분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요 6:4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실로 영생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수 12:7))

여호수아 12장

찬송가 60장

목/상/노/트

• 예루살렘(10절) : '평안함, 평안의 기초'란 뜻이다. 이 도시의 명칭은 '예루살렘' 이외에도 하나님의 성(시 46:4), 시온 성(삼하 5:7), 여부식(창 19:10~11), 살렘(창 14:18), 다윗 성(삼하 5:9), 거룩한 성(시 117:1; 마 4:5) 등으로 불린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3)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우리의 기업 예수님

여호수아 13장
찬송가 439장

묵/상/노/트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땅의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미정복 지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1~14절). 르 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실 때에, 각 지파의 가족에 따라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서운함이 없도록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가문의 명수에 따라(민 26:53~56), 제비를 뽑아서(민 33:54) 뽑힌 대로 기업은 얻게 하신 것입니다(15~31절). 그러나 이 일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32~33절).

다른 모든 지파가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신령한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든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요, 참 레위 지파로 부름 받은 우리도 어떤 물질적인 기업보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수 13:33)

• 기업(24절) :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기업은 '소유, 상속'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어떤 물질적인 기업보다 주님이 내 기업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갈렙의 열정으로

3

땅을 분배하는 일에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맡기는 행위입니다(1~5절).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어 45년 전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갈렙은 지금도 그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이 약속을 이루는 중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6~12절). 하나님은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전투에 임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육체와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10~12절).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며 축복했습니다(13~15절).

모두 안정과 쉼을 원할 나이에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된 기업을 취하러 가겠다고 선언하는 갈렙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행 1:8). 갈렙에게 허락하신 건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력이 남아 있고,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으니 선교의 현장에 믿음으로 달려 나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렙과 같은 순종과 열정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로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수 14:12)

여호수아 14장
찬송가 507장

목/상/노/트

• 가데스 바네(7절) :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다 (민 14:30~31).

기도제목

① 왕성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선교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지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삶

교회설립 58주년 기념주일





지난 58년간의 교회의 자취를 돌아볼 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을 향해 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며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십니다(마 16:18).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웅장한 건물과 탁월한 조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기억하라
하박국 3:17~19

니느웨의 회개
요나 3:3~10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25~33

잃어버린 기쁨
누가복음 15:25~3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월요일

☐ 여호수아 15장

6 화요일

☐ 여호수아 16장

7 수요일

☐ 여호수아 17장

8 목요일

☐ 여호수아 18장

9 금요일

☐ 여호수아 19장

10 토요일

☐ 여호수아 20장

기억하라

1

| 초점 |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하박국 3:17~19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번 주일은 교회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딤후 3:15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근간은 모두 부패했으며, 자연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세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범하는 죄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서 폭력, 불평 등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

느부갓네살의 첫 유다 침공 이전에 열악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에서 악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합 1:2~4

합 1:13 /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박국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부정직한 이윤 축적, 무죄한 피 흘림, 압제와 토색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들의 말씀 왜곡, 즉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국의 정부에는 정의가 없으며, 인류는 더욱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구는 재난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외면하고 있으며, 자신들 앞에 놓인 비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딤후 3:1~5 _____

불평하던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욱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합 3:17~19 _____

※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평화와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경험하기 원하는 참된 비밀입니다.

요 14:27 _____

요 16:33 _____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찾기 힘든 건조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딤후 2:8 _____

골 2:6~7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를 주로 받았으니 그 에서 하되 그 안에 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기적으로 기억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기 '이전과 이후'에 매우 실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눅 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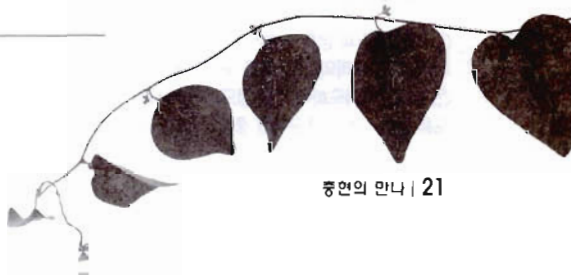
고전 11:26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결과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곧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간절한 기도 |

- ①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15장
찬송가 86장

독/상/노/트

유다 지파는 남부에서부터 평지와 산지, 광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읍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경계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명확히 정해주셨습니다(1~12절).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남쪽 에돔 경계까지와 평지, 산지, 광야에 120여 개의 성읍이나 되었습니다(21~62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은 약속으로 받은 헤브론을 공격하여 아낙 사람들과 드빌 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냈습니다(13~14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애굽을 떠난 제1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 전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분은 식언치 않으시므로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약속을 불드는 자는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수 15:20)

• **이동임 비탈(7월)** :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도상에 있는 비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이다(눅 10:30~37).

기도제목

- 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백성이 되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6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 놓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가지가 담을 낀 것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져 요셉의 자손들은 각각의 지파로 인정받아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장자가 낫새였으나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운 것을 인정하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영토를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이 받은 지역에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시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이처럼 자손 대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1~9절).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10절).

에브라임 지파의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훗날 급속히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쉽게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이지 인정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장되고 인정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타락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수 16:10)

여호수아 16장

찬송가 94장

목/상/노/트

• 아다롯(2절) :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기도제목

① 내 삶 속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쫓아내고 복음과 십자가로만 달려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도의 삶

여호수아 17장
찬송가 490장

묵/상/노/트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합의 기업을 그 딸들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획기적인 일로서, 하나님이 개인의 기업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정해주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상속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1~6절). 므낫세의 경계를 정해주시며, 인구 수에 따라 에브라임 자손들과 경계선을 조정하게도 하셨습니다(7~11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가나안 거만을 쫓아내지 못했고, 요셉 자손들은 이미 상당한 땅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지를 개척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무기(철 병거)를 두려워하여 땅만 달라고 불평한 것입니다(12~16절).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17~18절).

여호수아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박한 환경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대해 불신하는 자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영적 축복들에 감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부아(8절): 새짐 남쪽 약 13km 자점에 위치한 땅이다. 오늘날의 '웨이크 아부 자라드'로 추정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수 17:15)

기도제목

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허허루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약한 자를 통하여

8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대로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선물이었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며 꾸짖었습니다(1~3절).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전령하지 않은 나머지 가나안 땅에 보내어 성들을 파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제비를 뽑아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4~10절).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뽑은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으로 크지 않은 영토였습니다(11~28절).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유다 자손과 자기 형인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성경은 베냐민의 경계를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요셉 지파가 불평했던 황무지와 산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권과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연한 손 같으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연약하다고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수 18:11)

여호수아 18장

찬송가 440장

목/창/노/트

• 회막(1절) : 히브리어로 '오, 헬 모에드'인 회막은 문자적으로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날 곳으로 지정하신 장소를 말한다.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기도제목

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9)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과 순종의 삶

여호수아 19장
찬송가 433장

묵/상/노/트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땅 분배(1~23절)와 야곱이 발하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24~51절).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스불론과 잇사갈에게 분배된 땅을 차례대로 언급한 후, 발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아셀과 납달리와 단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영역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따라 유다 지파 안의 한 부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1,9절). 스불론 지파는 내륙의 작은 영토이지만 비옥한 영토가 포함된 12성읍을 받았으며(10~16절), 잇사갈 지파는 스불론처럼 작지만 좋은 농경지와 남북으로 통하는 무역로가 있는 16성읍을 받았습니다(17~23절). 또한 아셀 지파에게는 갈멜 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중해의 넓은 지역에 있는 22성읍을, 납달리 지파에게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근처의 비옥한 19성읍을, 단 지파에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동쪽에 위치한 19성읍을, 여호수아에게는 에브라임 산지 담낫 세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24~51절).

갈렙의 기업에서 시작한 땅 분배 이야기(수 14:6~15)가 여호수아의 기업(수 19:49~51)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야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주장하던 두 신실한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는 것은 이들의 신실함 때문에 정복과 분배가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순종과 신실함이 이스라엘 전체를 생명의 길로 향하게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진정한 자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수 19:51)

• **이스라엘(18절)** : 원래는 갈멜 산에서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평원을 가리킨다. 이 평원의 중앙에 이 성읍이 있다.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도 이곳이다(왕상 21:1).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피난처 있으니

10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도피성 제도가 여호수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였습니다. 살인의 경우 피의 보복자(가족이나 친척들)가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지만(민 35:19~21 : 신 19:11~12),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 신중히 판단하여 법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1~4,9절). 도피성은 가나안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으로 모두 여섯 곳에 두어 어느 지역에 서든 실수로 살인한 자가 하룻길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7~8절).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죄뿐 아니라 알고 지은 죄까지도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도피성이 치외법권 지역이며, 보복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듯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다스림에 놓이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어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수 20:9)

여호수아 20장

찬송가 73장

목/창/노/트

• 피의 보복자(3절) :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를 다하는 자'란 뜻이다. 즉 보복자는 살인으로 인해 균형이 깨진 가족 관계를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회복시켜야 했다.

기도제목

①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번 추석에는 가정예배(추모예배)...”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 민족에게 설이나 추석 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지만 한국 교회는 유교 전통에 따라 행하던 제례를 대신하여 추모예배를 드려왔다. 그런데 추모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먼저 추도예배 단어 자체의 문제이다. 추도(追悼)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으로 정의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천국에 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일이다. 따라서 ‘추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추모(追慕)라는 말이 비교적 적합하다. 추모란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함’ 혹은 ‘죽은 이를 사모함’의 뜻을 가진 말로, 추도보다는 훨씬 의미가 적절하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말자.

◎ 추모예배 시 주의사항 ◎

-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추모예배 시 고인만을 추모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예배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삶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
-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특히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아서는 안 되며,
준비한 음식은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기억하라

하박국 3:17~19

니느웨의 회개

요나 3:3~10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25~33

잃어버린 기쁨

누가복음 15:25~3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 여호수아 21장

13 화요일

☐ 여호수아 22장

14 수요일

☐ 여호수아 23장

15 목요일

☐ 여호수아 24장

16 금요일

☐ 고린도후서 1장

17 토요일

☐ 고린도후서 2장

니느웨의 회개

2

| 초점 |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 본문 | 요나 3:3~10

㉓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

㉕ 하나님ی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㉖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수만 개의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의 니느웨성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욥 1:1~3

욥 1:17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할까요? 죄인 된 우리는 아마도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설교자들이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니느웨에는 교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설교자만이 단기간 아주 짝박한 메시지를 전했다 뿐이었지만 도시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니느웨처럼 우리도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있으며, 그 때가 거의 임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요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3일 정도 걸어야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도착한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간단한 메시지(한 문장)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습니다.

욥 3:3~5

※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상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심판의 짧은 메시지를 전해 들은 니느웨인들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하며, 짧고 단순한 메시지를 이해했고 모든 백성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니느웨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회개했습니다.

※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고치십시오.

행 8:22

니느웨의 왕이 회개했다

니느웨의 왕은 요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금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욥 3:6~7 _____

몇몇 니느웨인들이 단 한 차례만 들은 이 빈약한 설교가 온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부유하고 젊은 통치자는 아무 노력 없이 부와 권력 그리고 성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이 도시로 와서 전한 메시지는 왕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몇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회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행 26:28 _____

롬 2:5 _____

니느웨의 백성은 기도했다

니느웨의 백성은 사악함에서 돌이켰으며 주님께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 3:8~10 /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_____
_____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_____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_____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_____

대하 7:14 _____

니느웨의 사람들은 순종하여 회개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들도 회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한 실례로써 그들의 놀라운 회개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진실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으로는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우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마 12:41 _____

벧후 3:9 _____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내 삶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교묘하고 악한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존심, 나의 뜻을 부인하고, 단지 우리는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눅 18:13 _____

딤후 1:15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의 젖줄

여호수아 21장
찬송가 526장

목/상/노/트

레위 족장들은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자신들의 거처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공동으로 보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1~3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대신에 각 지파로부터 거할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8~12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13~19절).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자기 도성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하라는 명령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지 레위 지파가 거할 땅을 내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젖줄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레위 지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해야 합니다. 혹 신문, TV, 인터넷 등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배울 수 있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안에 레위 지파를 두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를 생명의 젖줄로 삼아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수 21:3)

• 다 응하였더라(45절) : 문자적인 의미는 '땅에 떨어지다'이다. 약속하신 선한 말씀 중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와 비슷한 용법 이 례 9:6에 언급되어 있다.

기도제목

① 내 삶의 반경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레위 지파와 같은 생명의 젖줄을 내 삶의 영역에 두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를 섬길지니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형제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처음 약속을 변치 않고 잘 지켰습니다(1~3절).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말씀에 기대어 전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당부합니다(4~6절). 두 지파 반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가에 단을 쌓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간과 바알브올의 죄를 떠올리면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러 사신을 보냅니다(10~20절). 그러나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가에 단을 쌓은 것이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자기 후손들로 가나안 본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섬기는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합니다(21~29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땅을 차지한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을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싸울 전투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며,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눈에 보이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골몰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싸움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되, 매 순간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이 인정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수 22:5)

여호수아 22장

찬송가 324장

묵/창/노/트

• 브올의 죄악(17절) : 민 25장에 기록된 바알브올 사건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 모압의 우상들을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24,000 명이 죽었던 사건이다.

기도제목

① 매 순간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다 너희에게 응하여

여호수아 23장
찬송가 393장

목/상/노/트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1,3,5절).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 명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도 속히 망하고 멸절당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9~10, 15~16절). 그런데 언약의 성취 여부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14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의 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스스로 조심하여(11절) : 문자적 의미는 '네 영혼을 조심하라'이다. 곧 이 말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뜻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수 23:14)

기도제목

① 어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망각과의 싸움

목요일

15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어 먼저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2~4절). 또한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바로가 믿던 신들도, 바로의 군대도, 홍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전투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기억과 순종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5~7절). 광야에서의 승리는 가나안 승리의 전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세력이 적수가 되지 못했고,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8~13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았을 경우 감사는 더욱 커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상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때문에 우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셔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곧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더욱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망각과의 싸움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실제적인 싸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 24:14)

여호수아 24장

찬송가 540장

목/상/노/트

• **질투(19절)** : 히브리어로 '키느야'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특히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취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이다.

기도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잊지 말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6

고난과 찬양

고린도후서 1장
찬송가 336장

목/창/노/트

• **보충(22절)** : '일라분'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에만 3회 나오며 세 구절 모두 성령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본래 이 용어는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 주는 보증이나 선물의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채무자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님은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인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중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예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서로 자량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음을 밝힙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신앙¹백과 그의 계획이 변경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 고난이 갖는 의미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실로 고난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충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22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9)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형제들을 도우시고 고난받음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의 향기

17

에베소로부터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 이유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음을 밝힙니다. 그가 전에 쓴 편지 또한 진실로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넘치는 사랑으로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는 것을 걱정하며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벌하기를 명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서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1~11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고후 2:14~7:4). 그는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는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미움이나 원망으로 누군가를 벌하거나 책망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두었지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생명의 냄새를 나타낼 자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일을 미워하고 사탄의 계락을 물리치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고린도후서 2장

찬송가 89장

목/상/노/트

• **혼잡하게 하다(17절)** : 이 단어의 본래 원어는 '카멜류오'이다. 이는 도매업자에게서 산 물품을 시장에서 파는 소매상인의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소매상인을 뜻한다. '소매상을 하다, 행사하다'의 의미인 것이다. '속임수와 탐욕의 뉴앙스를 지니고, 돈을 위해 가르침을 팔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무지한 자, 범법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저는 무지한 자요, 범법자요, 패배자로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찼고, 마음이 강박하여 눈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고, 해마다 점을 치러 다녔고,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또한 아내가 쓰던 성경 필사본을 찢어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혈기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교회에 가게 된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천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암송을 하던 중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중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5월 28일 간암 1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때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아 말씀을 읽으며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나 같이 미련하고 악독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남성구역장의 직분과 장년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학식도 짧고 무지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삶이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늘 부인하기 원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고후 5:17).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최명호(집사, 13교구)

기억하라

하박국 3:17~19

니느웨의 회개

요나 3:3~10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25~33

잃어버린 기쁨

누가복음 15:25~3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고린도후서 3장

20 화요일

☐ 고린도후서 4장

21 수요일

☐ 고린도후서 5장

22 목요일

☐ 고린도후서 6장

23 금요일

☐ 고린도후서 7장

24 토요일

☐ 고린도후서 8장

마지막 때에는?

3

| 초점 |

예수님을 기다리면 믿음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239장 저 보는 본향 집

| 본문 | 누가복음 21:25~33

²⁵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²⁶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²⁷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²⁸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 있음이 감사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괴로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의 자연재해, 인재 그리고 도덕규범의 타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위한 문이 열릴 중요한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때입니다.

마 24:14 _____

눅 17:26~30 _____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만물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머리를 들라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눅 21:28). 성경을 통해서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눅 21:29~30 _____

계 13:17 _____

우리는 머리를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27)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이 아닌, 위의 것에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머리를 들어야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들에 대해 그만 생각하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골 3:1~2 _____

※ 머리를 들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눅 21:31).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행 1:8 _____

막 16:15 _____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주의 위대한 날은 가까이 오고 있으며 그 날은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현재 우리가 느낄 정도로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슥 1:15~16 _____

고전 11:26 _____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는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 21:33). 큰 고통들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배는 믿음을 지탱하게 합니다.

롬 10:17 _____

히 10:25 _____

시 102:26~27 _____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세상을 향해 오라고 하시지만, 이 기회는 곧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모든 열방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를 움직여 부지런히 믿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 이사야 65:1~3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십시오.

히 10:37~39 _____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머리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눈과 심령,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영과 진리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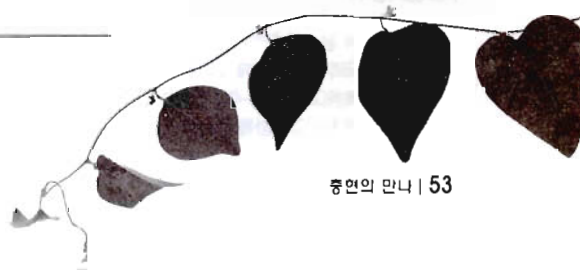
마 24:42 _____

유 1:21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마지막 때에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찬송가 496장

목/상/노/트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추천서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산 증인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그는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됨을 확신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과거 구약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을 받았던 일꾼인 모세의 직분의 영광과 비교하며 그들의 직분이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이므로 더욱 큰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려졌던 것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처럼 그 영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격과 영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가 누릴 영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역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모든 일할 수 있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누릴 모든 영광의 근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 율법 조문(6절) : 율법 조문으로 번역된 '그림자'는 문자, 글자, 문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본래 새기거나 조각된 것을 의미했으며,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란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한 이해에서 이 절에서는 율법의 돌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바울은 종종 이 용어를 영프뉴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기도제목

①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 질그릇

하나님의 공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중 됨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보배가 자신들에게 담겨진 것이 오직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아무 능력없는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 안에 담겨진 보배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들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남아지는 자신들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위하여 어떤 잘난 것과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자신들의 고난받음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지고,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고린도후서 4장

찬송가 92장

목/상/노/트

· **담담한 일(8절)** : 담담한 일을 뜻하는 헬라어 '아포레오'는 '길이 없다, 자원이 없어지다, 궁핍하다, 부족하다'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파생하여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당황하다, 의심하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기도제목

① 질그릇 같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찬송가 349장

묵/상/노/트

• **화목(18절)** : 이는 주로 '교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환전자들의 직무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떤 차이의 조정이나, 화해, 화복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적의나 불만의 표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본래의 화합의 회복을 의미한다. 신약에서는 바울서신에서만 4번 사용되며, 항상 하나님의 의화 또는 설리를 나타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먼저 집에 비유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옷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땅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덧입고자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같은 그의 소망이 성령으로부터 보증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소망이 자신의 소망임을 밝힌 바울은 이같은 소망 안에서 그의 사도의 직분을 이해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 안에서 특별히 자신의 사명이 화목의 직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늘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탄식의 세상을 피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함으로 걷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9)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집에 있게 하고, 그 소망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

목요일

22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밝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직분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어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자신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받아들이기를 부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코 한 멍에를 댈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외적인 이유로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삶의 기준과 모든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외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과의 사귄과 교제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 좋고, 다른 어떤 많은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결코 한 멍에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대(고후 6:10)

고린도후서 6장

찬송가 452장

목/창/노/트

• 상관(15절) : '상관한다'라는 표현은 '메리츠'라는 원어로 뜻, 영토, 나누어 가진 참여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상관한다'라는 용어는 '뜻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이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회개를 기뻐함

고린도후서 7장

찬송가 326장

목/상/노/트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자 대속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사도의 본질적인 직무와 자세, 그리고 권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고후 5:11~7:16).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마음이 진실함을 밝히고 자신들을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은 권면과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를 말합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난을 당할 때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된 그들의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랐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회개와 순종으로 바울은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책망과 권면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사적인 영광과 즐거움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보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 **근심하다(9절)** : '근심하다'라는 용어는 '뒤뉘다'라고 하는데, 이는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의 용어이다. 고전 헬라어에서 이 용어는 '고통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를 의미하며 이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양자 모두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말씀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장).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를 권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일 년 전에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적극 참여할 것과 간절함과 풍성함으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 같은 헌신이 성도들 간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교제임을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보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보낸 한 형제는 돈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성도들에게 헌신과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의 간절함을 무시하면서 내 믿음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말과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은혜받은 자의 삶의 믿음의 실천은 진실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후 8:7)

고린도후서 8장

찬송가 447장

목/상/노/트

·은혜(1절) : 일반적으로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카리스라는 용어는 은혜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도 선물이나 자비, 너그러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나 자비, 관대함, 보답, 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의미를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도제목

- ① 내 믿음의 진실함을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적 전쟁의 승리

이것은 전쟁이다.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처절한 전투를 벌인 느낌이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나의 두 번째 선교는 첫 사역 때와는 달리 언어도 철저히 준비했고 기도도 많이 했다.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할 것만 생각하며 선교지로 떠났다. 처음엔 일방적인 승리인 듯했다. 매시간 사역 때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혼들로 인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기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기도와 함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듯한 느낌.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마귀들의 권세가 아니었다. 이미 교만하여진 내 속에 악한 마귀는 침투하여 역사하며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로 인한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생각했다. 사역평가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이미 주님을 배제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며 다른 팀원의 사역을 평가하여 비판하며 상처를 입힌다. 맹공을 가하는 마귀의 역사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나는 이미 공격력을 상실한 상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아직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쓴다. 간신히 전투에 다시 임한다. “아! 힘들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의 공격은 더욱 막강해졌다. “주여! 주님!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지식과 경험은 사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함을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누추한 말구유 의 예수님, 40일 금식과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골고다의 십자가 지심. 실제 전도의 대상인 저 불쌍한 영혼들은 주님 예비하신 대로 맑은 눈으로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건만 사악한 마귀는 내 속에서 역사하며 의지를 꺾어 접근 자체를 방해할 만큼 간교하였다. 빠른 속도로 상처가 아물면서 전투력을 회복한 나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장 예수의 기를 가지고 접전하는 그곳에는 승리만이 있었다.

주영선(집사, 14교구)

기억하라

하박국 3:17~19

니느웨의 회개

요나 3:3~10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21:25~33

잃어버린 기쁨

누가복음 15:25~3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고린도후서 9장

27 화요일

☐ 고린도후서 10장

28 수요일

☐ 고린도후서 11장

29 목요일

☐ 고린도후서 12장

30 금요일

☐ 고린도후서 13장

1 토요일

☐ 사사기 1장

잃어버린 기쁨

4

| 초점 |

예수님께로 가면 기쁨의 삶을 산다

| 찬송 |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본문 | 누가복음 15:25~32

²⁵말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²⁶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²⁷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²⁸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에 관한 설교는 확실히 많지만, 그의 형에 관한 설교는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그의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식솔들과 축하 잔치를 계획했습니다(눅 15:23).

눅 15:25~28

형만 제외하고 모두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탕자와 가장 가까운 혈족은 자기 형이었지만, 일터에서 돌아온 그는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형은 이 특별한 때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시간의 즐거움을 계속 잃어버릴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부정적, 비평적,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 비평적, 불평하는 마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원리가 맞다는 증거는 우리의 부정적 자세와 불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 바울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행 16:23~28, 32~34).

※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원수가 자신을 가두었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에도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는 부유해도 투덜거립니다. 아주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우리는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 22:37~39

살후 2:13

성난 마음

성난 마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아주 의롭게 살아왔기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눅 15:29~30 _____

엡 2:12~13 _____

탕자의 형은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천사들과 의인들도 탕자의 귀가를 기뻐했지만, 그의 형은 화가 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생각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동생이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로마서 3:10~18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눅 15:31 _____

냉담한 마음

냉담한 마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의 죄만 보았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 동생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은 자신의 형의 비난에 지쳐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요일 3:14~16 / 우리는 형제를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하는 자마다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탕자의 형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을 뿐 동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눅 15:32).

※ 탕자의 형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일 4:21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하 파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잃었던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기쁜 소식이며, 하늘의 모든 의인들을 기뻐 흥분하게 만듭니다. 불평, 비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에 우리도 슬퍼합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면 참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전 2:19~20

몬 1:20

| 간절한 기도 |

- 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분노하고 냉담한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 ③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즐거 내는 자

고린도후서 9장
찬송가 211장

묵/상/노/트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 미리 준비할 것과 연보를 하는 자세, 연보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일을 일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게도나 인들에게 자랑처럼 말했던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준비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며 미리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이며, 억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결코 그들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봉사와 연보를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즐겨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우리의 연보와 헌신은 주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우리의 의로 억지로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 **인색함(7절)** : 인색함을 의미하는 원어는 '뤼페'로서 앞서 살펴본 적이 있는 근심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이다. 이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인색함으로 연보를 한다는 것은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연보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 안에서 사랑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과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외모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남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 위에서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이룬 것인 양 자랑하는, 실로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말로 그들을 향하여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결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교만하고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후 10:18)

고린도후서 10장

찬송가 90장

독/상/노/트

·담대함(1절) : 담대함이라는 말은 좋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씩씩하다, 혹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이에서 파생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항하여 도전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그 태도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기도제목

① 외모로 남을 그리고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바울의 참된 자랑

고린도후서 11장

찬송가 314장

목/창/노/트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까지 언급하는데,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받는 영육간의 대접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고 그에게 사도권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았고,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 역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복음을 위하여 수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실로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순전한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간절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관심과 자랑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있어야 합니다.

• **간제(3절)** : '피누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을 뜻한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용어이다. 곧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함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여기에서 '교활, 간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미혹(3절)** : '미혹하다'라는 표현은 '엑사파타오'라는 용어로서 '속이다, 기만하다, 사위하다'라는 의미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기도제목

① 오늘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약한 그 때에 강함

바울의 자랑은 12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 나타나는 그의 자랑은 주의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그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랑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치, 곧 연약함을 통하여 결코 자만할 수 없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세 번 간구하였으나 그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9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다시 한 번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그 때가 강한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상한 자랑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다시 만날 때 두려움이나 슬픔함이 없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어떤 이들의 자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며,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결코 자신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고린도후서 12장
찬송가 300장

목/창/노/트

• **낙원(4절)** :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표현으로 파라데즈라는 페르시아 용어에서 차용된 단어이며, ‘정원, 공원, 또는 낙원’을 의미한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표현(눅 23:43), 예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계 2:7), 그리고 이 장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히브리어의 정원을 나타내는 표현 ‘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도제목

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찬송가 289장

목/상/노/트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해 엄히 대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들 역시 이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일로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고, 서로 문안하기를 권면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5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얻은 줄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툇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진실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 **교통하심(13절)** : 교통하심이라는 헬리어 원문은 ‘코이노니아’이다. 이는 ‘교제, 사귄, 공동체, 공유’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고후 13:5)

기도제목

①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이 혼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 문학, 건축, 의복, 음식 등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한국의 전통 문학은 인간의 삶과 사색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한국의 전통 의복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은 맛과 영양을 중요시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청지기훈련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후 4:3~4)



청지기훈련에 임하기 전, 나의 모습.

청지기훈련이 있다는 공고를 여러 번 들었을 때에도 솔직한 내 마음은 '아, 청지기 훈련이 있구나' 였다.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에 간절함이나 깨어 있음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금요일 저녁, 일을 마무리 하고 나오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그런데 교회로 가까이 올수록 내 마음은 다급해졌다.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 잔치에 내가 너무 둔해 있었구나. 소 몇 겨리와 새로 산 밭 때문에 정작 더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간과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자 발걸음이 급해졌다. 막히는 빗속을 뚫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당 가운데 벌써 가득 찬 은혜에 감사했고, 주시는 은혜를 찾지 못했던 내가 안타까웠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

매일 돌아보아도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이지만, 때로는 그 고백마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입술에 발린 공허한 고백이 아니었나 싶다.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가끔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난 어제 회개했으니까 떳떳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땐, 짹짹 놀라며 스스로 죄인인 듯 느끼려고 '감정'에 의지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음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항상 표적을 구했지만 보아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 하실 땐, 정말 내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언제나 내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내 모습과 똑같았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심이 너무 감사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오묘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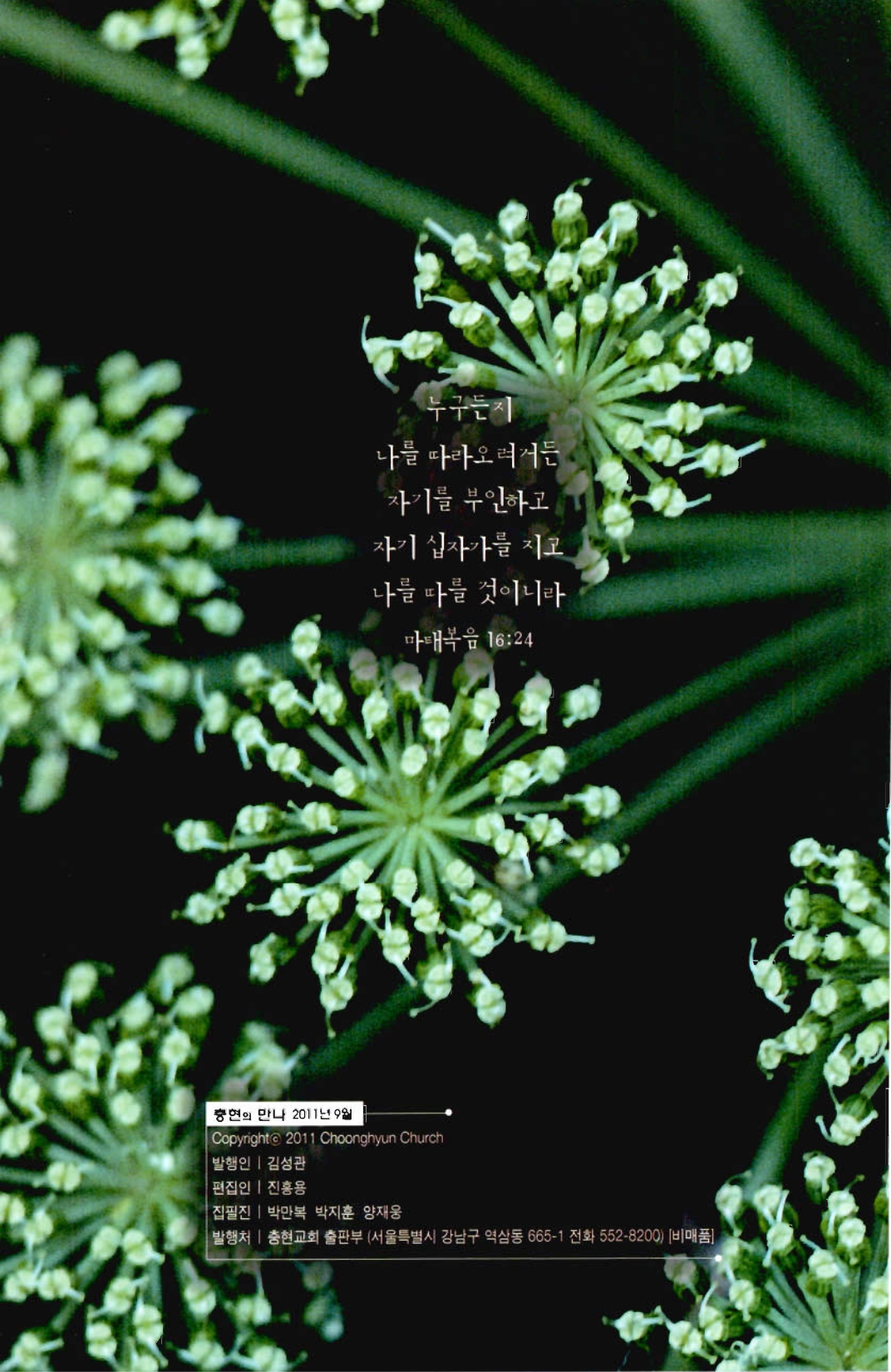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

'복음 전하는 자의 심령은 간절하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복음을 전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정말 간절한가? 내가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못함을, 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나의 이런 마음과 반문까지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주님, 나의 삶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옵니다. 주 뜻대로 이끄소서. 아멘."

임예인(집사, 청년1부)

3월 14일 목요일

3월 14일 목요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중년의 만나 2011년 9월

Copyright ©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